

# 냉동 돼지고기 관세 조기철폐 절대 불가

## 양돈협, '한·EU FTA 강력 반대' 성명 발표

한국과 유럽연합(EU) FTA 협상이 개시되자 양돈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7월 23일 '미국에 이어 EU에도 국내 양돈산업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란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중 약29%를 차지하고 있는 EU와의 FTA협상으로 국내 양돈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EU FTA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미 FTA로 강력한 펀치를 얻어맞고 큰 충격에 빠진 우리 양돈농가에 EU와의 FTA는 우리 양돈산업을 KO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여기에 우리 협상단의 무지에서 나오는 양돈산업 경시행태는 국내 양돈농가들을 더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FTA를 통해 냉동 돼지고기가 개방된다면 그 파장은 예상보다 더욱 강력하다"며, "EU와의 FTA는 양돈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협회는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중 약29%를 차지하고 있는 양돈강국이며, 현재 관세 수준에서도 EU산 냉동 삼겹살의 국내 수입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U는 이미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20만톤)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양돈 최강국으로,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조기철폐는 양돈산업의 포기선언과 같으며, 양돈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우려했다.

양돈생산성 또한 우리의 1.8배에 이르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앞서있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EU가 이러한 요소들을 막강한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이 이미 정착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국내 양돈산업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로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피해를 입힐 강대국이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편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협회는 따라서 한·미 FTA 무효화 투쟁과 함께 한·EU FTA 협상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뜻을 밝혔다. **양돈**